

# 특검수사, 28일까지 쓴다... 연장 실패시

### 구속 피의자 기소 여부 28일까지 결정... 내달 3일까지 검찰에 수사 이첩 후 결과 발표 검토 중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에 실패할 경우 수사 결과 발표를 내달 3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등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가 있고, 기소해야 할 대상이 많은 만큼 1차 수사 기간인 28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범위와 피고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

에 수사를 하면서 동시에 수사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부터 정리를 해서 아무리 빨라도 3월3일에 수사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내달 3일까지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이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사결과를 종합한 공식발표는 검찰에 수사를 넘기는 작업이 마무리된 뒤 진행된다. 현재로서는 3월3일이 유력하며, 늦어도 3월6일까지는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

다.

또 수사기간 종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와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이 특검보는 "법무부와 파견검사 진류문제를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며 "진류할 파견검사의 숫자는 확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뉴스

## 김춘진, "한국당 탄핵 불복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최고위원은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맞선 탄핵 불복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명천지에 환자를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수술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그만 멈추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 황 대행,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표출된 국민의 엄중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 다수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활동 기간 연장을 바라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탕진한 박 대통령과 주변 범법자들을 정의롭게 의법 조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대통령 사퇴와 사법처리 면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참으로 파렴치한 동니와 썸수가 아닐 수 없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황교안 대행, 자유한국당이 특검의 정당 활동기간 연장을 가로막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방해하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국민적 행위"라며 "헌법적 가치실현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인재용 기자

## "지방정부에 재정·인사권한 확대할 것"

안희정 충남지사, 전북지사협 '대전, 지역을 묻다 토론회' 서

전북 몫 찾기에 "광역경제권역 설치해야"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5일 "지방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개헌논의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전주 KBS 방송총국에서 열린 전북기자협회 주최 '대전, 지역을 묻다' 토론회에서 "지방정부에 재정과 인사권한을 확대하는 등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의 90%는 중앙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 혁신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지난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요구하는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현재는 국민의 요구와 여론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탄핵 요구는 그 자체가 헌법이라 생각한다"며 현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선의 발언' 논란에 대해 안 지사는 "민주주의는 대화와 소통의 정치가 중요하며 박근혜 정부의 K미트제도의 예를 든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하며 불거진 정세성 논란 잠재우기에 주력했다.

낙후된 전북 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 지사는 "전북 지역의 소외감에 공감한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안인 서해안시대를 맞고 있다"고 말하며 새로운 성장 방안으로 서해안시대의 장미빛 전망을 내다봤다.

전북 홀대론에 대해서는 "지역 홀대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앙집중제를 폐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권한과 기회,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면 홀대론은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전주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왼쪽)가 김승수 전주시장(오른쪽)과 함께 연단을 바라보고 있다.

전북도가 주력 사업으로 추진중인 전북 몫 찾기에 대해서 안 지사는 "지방 정부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며 광역경제권역(광역경제청) 설치를 주장했다.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 안 지사는 "조선사업에 대한 일대 수술은 어렵지 않다"며 "그러나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공장가동 중단이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과 충남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농경문화가 지역발전의 결실물로 작용했지만 양도가 추진중인 백제 문화역사지역의 개발로 지역의 관광산업의 근간을 이루도

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촌문제에 대해 안 지사는 "현재는 정책의 다양화로 인해 14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농민들에게는 체감할 수 없었다"며 "정부 주도하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농가 단위에 직접적인 지원 정책으로 농가가 스스로 책임지는 농업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토론회 후 안 지사는 관동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인재용 기자

## 이영선 구속여부 오늘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6일 이 행정관을 상대로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뉴스

## 더민주도당, 대선 대비 핵심 당원 교육연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3~24일 1박 2일동안 무주 리조트에서 상반기 핵심 당원 교육연수를 가졌다.

3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연수는 직무교육을 통한 핵심 당원의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또한 조기대선을 대비해 지역 현장에서 주도적이며 효율적인 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됐다.

특히 교육 연수에 대한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단체장들의 기고문과 홍보 전략 프로그램 등을 자료집으로 제작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이수혁 단국대 석좌교수의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조기권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제대로 알기',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부위원장의 'SNS 활용법' 등으로 진행됐다.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이 예상된다. 이에 당원들의 모든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핵심당원연수를 통해 침몰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생 회복을 다짐하는 작은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국민의당 도당,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환영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완전히 이전한다.

지난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이전 계획이 시작된 후 5년간의 완전 이전이다.

이에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오전 8시부터 전주로 첫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넬 예정이다.

새로운 출근길을 따뜻하게 맞이한 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이어진다.

간담회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시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도 학교를 바꾸는 힘  
행복한 교육 공동체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급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